



Kyo.Prot.N. 8/2021

## 교토 교구 세례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주교 편지

세례지원자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주일에는 「세례지원자를 위한 전례」가 거행됩니다. 교토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세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세례지원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바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례의 준비가 기대한 만큼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부디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이 「정화와 조명」의 기간을 소중히 보내 주십시오. 세례지원자 여러분은 자비하신 하느님의 무상의 사랑과 계획에 의해 선발되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악의 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를 결심을 굳게 하여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교토 교구의 신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거행되는 세례지원자들을 위한 전례에 열심히 참여하여, 세례지원자들과 함께 각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파스카의 신비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심과 신앙과 사랑으로 생활을 새롭게 하여 세례지원자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올해 재의 수요일에 「사순절은 희생의 작은 꽃송이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를 식별하는 것」, 「자신의 인생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쁨으로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주목 받고, 칭찬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목교서(연두서간) 『코로나 시대를 사는 신앙』에 썼듯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느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폭풍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겸허함을 기원합니다.

교토 교구는 매년 부활절의 일요일에 새로 세례를 받은 분들과 다른 그리스도교(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개종한 분들을 맞이하여 「교토 교구 새신자 모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지 되었지만, 올해는 부활 제 3 주일, 4 월 18 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 년 2 월 21 일 사순 제 1 주일

가톨릭 교토 교구 주교

✠바로 오오츠카 요시나오